

11월 7일

레위기 5 장: 레위기 5 장은 두 가지 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속죄제(1-13 절): 부지중에 지은 죄나 소홀함으로 발생한 죄를 위한 제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속건제(14-19 절):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죄를 위한 제사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반드시 배상(번제)을 포함해야 합니다. 두 제사 모두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복을 이루는 제사이지만, 속건제는 사회적 책임과 배상 의무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용서와 복원, 하나님이 주신 길

죄는 우리 모두에게 넘지 못할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이 죄의 무게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며,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 거대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의 길을 열어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삼켜버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대한 사랑의 대양과 같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며, 반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는 영적으로 부정한 것이며 전염성이 강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정해진 자는 속죄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제(Sin Offering)를 통해 죄의 씻김과 용서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는 죄와 그 책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레위기 5 장에 나타난 속건제(Guilt Offering)는 죄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나 이웃에게 구체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 드러졌습니다. 이 제사의 핵심은 바로 피해를 입힌 당사자에 대한 완전한 배상, 즉 복원(Restoration)이었습니다. 속건제는 손해를 입힌 것에 20%를 더해 배상하도록 명함으로써, 진정한 회개가 행동을 수반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든 이웃이든 손해를 입혔을 때, 솔직하고 진실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때우려는 태도가 아니라, 그 손해를 온전히 배상하고 관계를 복원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행동을 지녀야 합니다. 속건제가 요구했던 20%의 추가 배상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 이상의 헌신을 통해 상대방의 피해와 마음의 상처까지 회복시키려는 진실한 태도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동물의 피를 드리는 속죄 제물이 불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는 단 한 번의 완벽한 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고난과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형용할 수 없는 헌신적 사랑이며, 우리는 이 사랑에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의 말씀을 순종하여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자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드릴 것이 없어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마저도 피 없는 고운 가루로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예외 없이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이제 그 용서의 능력을 힘입어 상처 준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복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묵상 질문: 회개의 태도와 기꺼이 죄를 고백하는 마음 없이는, 제사의 모든 제도도 죄인을 온전히 도울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동물을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이 죄에서 돌이키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회개 고백은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묵상하면 은혜가 됩니다!

- 1-4 절에 언급된 고의로 범한 죄가 아닌 네 가지 예는 무엇입니까?
- 용서를 받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은 무엇입니까? (5)

3. (참, 거짓)-속죄제는 제물을 받치는 자의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비싼 수소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6-13)
4. 속건제는 속죄제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6)
5. (참, 거짓)-어떤 이가 알지 못하고 (부지중에) 죄를 범하게 되면 그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서 면제되었다. (17)
6. **자백/회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나 속건제와 같은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물 자체가 죄를 기계적으로 소멸시키는 마법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제물에 앞서 제물을 드리는 자의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이었습니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제단에 올려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단 한 번의 완전한 영원한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는 영원히 속죄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물이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자복할 필요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 덕분에, 우리는 형식적인 제사 의식이 아닌, 진정한 마음의 자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자복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죄의 인식 (인정): 자복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히 인정하고 인식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심각성을 깨닫게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거룩함 인지: 죄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죄가 더럽고 부정한 것임을 깨달으며, 동시에 죄와 조금도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을 다시금 인지하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 앞의 겸손: 자복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가장 겸손한 자세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됩니다. 넷째, 죄로부터 돌아서고자 하는 마음(회개): 진정한 자복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죄로부터 돌아서고자 하는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죄를 범한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17).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동물의 피가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 즉 죄를 깊이 뉘우치고 통회하는 자복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의 확신을 가집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더욱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 죄는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제사를 의지하여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복하고 돌이키시겠습니까?
7. **피흘림이 없는 속죄제(12-13 절):** 레위기 5:12-13 에서 말하는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로, 죄를 범했지만 재정적 부담이 있거나, 소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드리는 피흘림 없는 속죄 방법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피가 없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피흘림 없는 속죄제도 존재합니다. 다만, 죄의 종류가 제한적입니다. 고의로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하는 중대한 죄는 여전히 피를 흘리는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소제는 부지중에 범한 작은 죄나 연약함으로 인한 죄에 해당합니다. 피흘림이 없는 속죄제-소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피흘림 없이도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9 장과 10 장에서 강조되듯,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한 번에 모든 죄를 속죄합니다. 오늘날 죄 사함은 믿음과 회개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8. **관계의 복원, 속건제의 영적 의미:** 구약의 속건제(Guilt Offering)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제사는 개인이 하나님이나 이웃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 드려졌습니다.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 죄의 대가를 치렀지만, 그와 동시에 해를 입힌 자에게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속건제의 핵심입니다. 속건제의 독특한 점은 손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피해액에 20%를 더하여 돌려주도록 명시했다는 것입니다(레위기 6:5). 이 추가적인 배상은 죄에 대한 책임이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행위로 끝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책임의 회피 금지: 죄는 언제나 결과와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만을 구하고, 이웃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완전한 복원 의지: 20%를 더한 배상은, 상처 입은 이웃의 손해를 단순히 메우는 것을 넘어, 관계를 완전히 복원하고 마음의 상처까지 회복시키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죄의 치명적인 결과(하나님과의 단절, 영원한 형벌)는 제거되었으며, 우리는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이 속죄 제사를 불필요하게 만들었을지라도, 우리가 이웃에게 해를 끼친 경우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 일을 바르게 해야 할 책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를 입힌 자들과 관계를 바르게 하며 그 일을 바르게 하는 것—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속건제입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배상과 관계 회복 노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값없는 용서를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감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외적인 증거가 됩니다. 배상하고 화해하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행동과 희생을 통해 관계를 복원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상대방에게 복원 이상의 사랑을 실천하시겠습니까?